

# 길림땅에 울려 퍼진 영생축원의 송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 성대히 진행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 세월이 두 번이나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얼마전 민족최대의 추모일을 맞으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재중동포들도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인류의 대성인

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에 대한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통일신보사 편집국은 중국의 길림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취재하였다.



### 세월이 흘러가도

7월 1일 아침 우리 취재단은 심양시에 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를 찾았다.

회고음악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문제를 토의하던 총련합회의 성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회고음악회준비가 잘되고있는가를 묻는 우리에게 최수봉부장의 장은 지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각 지부들, 모든 재중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길림에서 진행하게 되는 회고음악회를 뜻깊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수령님을 따르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해마다 7월 8일을 맞을 때면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는 사업을 전통화하고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회고음악회를 크게 조직하자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것은 우리 재중동포들의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충정의 마음이다. 우리의 이 그리움, 충정의 마음을 그대로 회고음악회무대에 터쳐놓으려고 한다.》

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은 25년전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고 기념사진을 찍던 뜻깊은 날을 추억하면서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태양의 그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아버지수령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열정이 샘솟는다고 하면서 수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배돌 재중동포들의 어버이시며 천만년 파르고 받들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전일군으로서 어떻게 하면 7월 8일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의의있게 해나가겠는가 하는데 모든 정력을 바쳐간다고 하면서 이번에 진행되는 회고음악회가 아버지수령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만들어 모셔갈 재중동포들의 열의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말속에서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수령님을 따르고 받드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절대불변한것임을 뜨겁게 확인할수 있었다.

### 그리움의 노래, 경모의 노래

길림. 내 일생에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아버지수령님 회고록에서 뜻깊게 회고하신 길림땅이다.

80여년전 갑갑한 밤하늘에 새별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조선의 청년지도자를 찾아 열혈의 조선청년들이 저지마다 달려오던 이 길림으로 오

늘은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 중국 각지에서 동포들이 달려왔다.

동포들은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아버지수령님 동상앞에 다함없는 흙모와 충정의 마음이 어린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국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고 이어 중국길림육문중학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동포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송화강기슭에 있는 송화강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회고음악회무대의 전자막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라는 글발이 새겨져있고 관람석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음악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 각 지구협회 일군들과 지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련사와 총련사관 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화국공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길림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령사처 부처장, 길림시 인민정부 외사관공실 주임, 길림시공안국 부국장과 길림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

한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음악회에서는 먼저 최은복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업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 길림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어 가장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어언 20년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동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영웅, 가렬한 전화의 불비를 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은인을 우러러 부르는 송가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재중동포에 술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선군으로 지켜주

는 령도따라 애국위업에 자기의 고결한 충정을 다 바쳐갈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는 뜻깊은 자리로 되기를 바란다

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장내에 차 넘치는 가운데 연변가무단 박경숙배우가 부르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무대에서 울리고 이어 남성독창 《시랑가》, 여성3중창 《김일성장군님

은 우리의 태양》, 남성독창 《유격대말파리 달리네》, 여성독창 《노래하세 대동강》, 남성독창 《문경교개》가 무대에 올랐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영웅, 가렬한 전화의 불비를 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은인을 우러러 부르는 송가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재중동포에 술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선군으로 지켜주

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장군님 생각》, 《인생의 불빛》에 담아 절절하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회고음악회에는 중국예술인들도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다.

무대에 오른 지휘자는 길림땅에 살고있는 중국인민들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오늘 회고음악회에 몇사람만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지마다 참가하겠다고 하여 규모가 커졌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존경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격정을 터쳤다.

송가였다.

재중동포에 술인들은 《우리는 길림사람》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길림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노래하면서 송화강흐름이 영원하듯이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실 재중동포들의 진심을 감동깊이 터쳐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고음악회무대에는 위인칭송의 송고한 화폭을 높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곡목들이 연이어 울렸다.

음악회의 절정을 이룬 혼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와 대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서 예술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만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따라 해외동포운동을 애국의 운동, 충정의 운동으로 힘차게 벌려갈 자기들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회고음악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깊은 연고관계를 맺은 황진생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과 중국의 장울화선생의

가족을 비롯한 연고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수령님과 맺은 각별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그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받들어나가겠다고 격정에 겨워 토로하였다.

음악회는 합창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그 이튿도 추억깊은 길림의 송화강대극장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애국충정을 다 바쳐나갈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길림땅 아니 온 동북땅에 울려 퍼진 그리움의 노래, 경모의 노래는 세월의 끝까지 무궁토록 울려 퍼지리라.

### 조국으로, 수령님 품으로

우리 통일신보사 취재단의 취재는 길림땅에서 끝나지 않았다.

단둥에서 조국으로 향하는 렬차안에서도 우리의 취재는 이어졌다.

길림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부국장은 길림에서 회고음악회를 가졌지만 이렇게 조국에서 진행되는 추모

행사에 참가하려 렬차를 타고달리나 감회가 더욱 깊다고 하면서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을 뵈오려 가는 이 평양길이 정말 뜻깊은 길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껏 조국을 많이 방문해왔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조국으로 가는 심정은 류다르다고 하면서 평양이 다가올수록 그리움은 더욱 커만 간다고 토로하였다.

동주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 부국장은 길림에서부터 나의 마음은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만 달려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령전에 전체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렸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심정이라.

렬차안의 모든 동포들의 마음이, 아니 동북땅에 사는 모든 재중동포들의 마음이 수령님께로 달려있고있는 것이다.

한 렬차안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론 비록 해외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평양에 두고 살며 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엿볼수 있었고 아버지수령님을 천세만세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는 해외동포들의 진실하고도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평양으로만 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인가 렬차는 기운차게 달리고 달리고있다. 그리운 조국으로, 아버지수령님 품으로.

본사기자 김대룡



이번에 길림에서 진행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에 참가하고보니 정말 주석님 생각이 더욱더 사무치고 간절해진다.

저는 아버지수령님을 4번이나 만나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사람이다. 다심하신 친정아버지 같은 신 주석님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그 날과 날들을 어찌 20년세월이 흘렀다고 잊을수 있겠는가.

1992년 4월 탄생 80돐을 맞은 주석님께 삼가 건강축원의 인사를 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오늘 재중예술인들이 공연을 참 잘했다고, 공연을 보니 길림생각이 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 주석님을 영원히 못 잊어

수령님께서 한평생 잊지 못하신 이 길림땅에 오니 그날의 주석님모습이 더욱더 사무치게 안겨오고 어버이의 사랑이 못견디게 그리워진다.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배부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과 은정은 20년세월 동포활동을 애국의 활동으로 꽃같이 이어갈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이었고 고무였다.

동포사업을 하는것이 결코 험한 일은 아니다.

때로는 동요한적도 있었고 힘들어 주저앉은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세워주고 떠밀어준것은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였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20년세월을 변치 않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걸어올수 있었고 우리 동포들을 조국의 참된 해외공민으로 맺

맺이 살도록 동포사업을 해올수 있었다.

우리 동포들에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 계신다.

나는 대원수님들을 따라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애국의 한길, 충정의 한길만을 꽃같이 걸어가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이 우리 해외동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나의 모든 힘과 열정을 장그려 다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길시 지부장 리혜영



가수가 되어 지금껏 오랜 세월 수많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긍지스러웠던 시절은 아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던



### 나의 간절한 소원은

매라고 해야 할것이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봄축전에 참가할 때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해계실 때 그이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렸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하였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나는 오늘 회고음악회에서 《시랑가》와 《꽃파는

처녀》를 불렀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지금껏 내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수령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흙모와 경모의 분출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토로이기도 하다.

저의 노래를 두번이나 들어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와 나는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

할수 없었다.

오늘은 비록 길림에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지만 앞으로는 꼭 고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고싶다.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조선을 세계만방에 펼쳐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노래를 부르고싶다.

위대한 수령의 노래를 가지고있는 인민의 앞길은 언제나 휘황찬란하다.

재중동포가수 최경호